

●일일스터디_표준안

윤선민 / 중앙일보 / 2026.06.04.

순번	기사 제목/뉴스 헤드라인	분야	비고
1	해 뜰 때까지도 오리무중...오세훈 서울시장 '5선' 성공	정치	-
2	"송파구 투표지 50%만 인쇄"...왜 그랬나	정치	-

(1)기사/뉴스요약

해 뜰 때까지도 오리무중...오세훈 서울시장 '5선' 성공

[앵커]

민심의 선택은 이번에도 절묘했습니다.

먼저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에 지방권력을 몰아줬습니다.

부산과 충남, 강원 등 열두 곳이 푸른색이 됐습니다.

하지만, 최대승부처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.

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역시, 민주당에 압도적 승리를 주진 않았습니

다. 민주당이 아홉 곳, 국민의힘은 네 곳을 차지했고,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

다. 네, 먼저 가장 치열했던 승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

서울시장 선거는 날이 밝고도 한참 지난 후에야 승자가 결정됐습니

다. 투표지 부족 사태 속에 불과 1%p 차이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습니

[리포트]

49.15%대 48.13%, 서울시장 선거 최종 결과는 단 1.02%p 차이였습니다.

526만여 명 투표에서 불과 5만 3천여 표가 승패를 가른 겁니다.

개표 초반 크게 뒤처지던 오 당선인은 막판 대역전극 끝에 오늘(4일) 아침에서야 승리를 확인했습니

다. 사상 첫 '5선 서울시장' 고지 성공은 '상식의 승리'라고 자평했습니다.

선거 내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때리고, 신속한 재개발·재건축, 이른바 '닥치고 공급'을 외치면서, '한

강 벨트'의 표심에 힘입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.

당선 직후에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, '글로벌 3위 도시' 도약과 함께, 부동산 문제 해결을 빼놓지

않았습니

핵심: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.

(2)기사/뉴스요약

“송파구 투표지 50%만 인쇄”...왜 그랬나

[앵커]

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50%에 맞춰서 투표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
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지만, 결과적으로 대실패였습니다.

왜 이렇게 된 건지,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[리포트]

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, 선관위가 밝힌 이유는 단순합니다.

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고, 본 투표 용지를 선거인 수의 50%만 준비했던 겁니다.

투표용지 인쇄는 구·시·군 선관위가 맡는데, 사전투표와 본 투표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.

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출력하지만, 본 투표는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합니다.

이 본 투표 용지, 얼마나 미리 인쇄해 둘지, 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.

선관위 내부 '지침'으로만 하한선을 정해놨는데, 통상 선거인 수의 60% 준비해오던 걸, 이번 선거를 앞두고 50%로 낮췄습니다.

송파구 선관위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50%대였으니, 사전투표자 빼면 충분할 거다, 본 투표 용지를 하한선 50%에 맞춰 준비했습니다.

하지만 본 투표 당일 투표 참여가 예상을 웃돌면서, 송파구 투표율은 65.8%를 기록했습니다.

게다가, 투표소별로 투표 용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데도 실패하면서, 일부 투표소 투표 용지가 바닥을 드러냈던 겁니다.

왜 투표용지 준비의 최소 기준을 낮췄는지, 투표율 예측은 적절했는지를 놓고 진상 규명과 문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

핵심: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가 밝힌 이유는 '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고 본 투표 용지를 선거인 수의 50%만 준비했다'였다.

●일일키워드

순번	키워드	설명	출처
1	비례대표제	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 방식으로, 소수 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.	시사상식 사전
2	보궐선거	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,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 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	시사상식 사전